

미주 모퉁이돌선교회 기도제목(2023.5.1)

1. 북한과 중국 선교를 위한 기도

G 선교사_중국 교회를 동원해 북한 선교에 참여케 하옵소서!

중국 교회는 당국의 통제하에 그 어느 때보다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에 성경 배달과 지도자를 훈련하는 신학교 배달 중심으로 진행되는 본회 사역에도 어려움이 따릅니다. 북한과 중국에 성경 배달과 지도자를 훈련하는 신학교 배달 중심으로 진행되는 본회 사역에도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 모든 상황을 넉넉히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선교사와 사역이 되도록 기도가 필요합니다.

시편 67편 1-3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내리시며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그리하여 당신의 가르침이 온 땅에 당신의 구원이 모든 민족에게 알려지게 하소서 하나님이며 민족들이 당신을 찬양하고 모든 민족이 당신을 찬양하게 하소서” 하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1. 올해부터 중국과 북한 간의 여행과 무역의 길이 다시 열리기 시작하였는데, 이러한 때에 중국 교회의 북한을 향한 열정이 되살아나, 중국 교회 동원 사역이 이전보다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2. 중국에 머물고 있는 탈북 여성을 위로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도 코로나 이전과 같이 활성화되게 하옵소서.

3. G선교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자녀들의 건강을 지켜 주셔서 사역에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2. 한미연합훈련을 빌미 삼아 핵 능력을 강화하는 도발을 이어가는 북한의 계략이 무너지고 북한 주민이 자유케 되어 복음을 듣게 되도록 기도합니다.

한미연합훈련을 전후한 북한의 도발 행위가 김정은 집권 이후 10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통일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김정은이 2011년부터 한미연합훈련을 핑계로 무력 도발한 횟수는 총 81회였습니다. 반면 김정일은 2001년부터 10년간 7회였습니다. 연합훈련에 대한 공식 입장 표명도 김정은 이후 증가했고 공세적으로 변했습니다. 김정일 정권은 총 37회에 걸쳐 입장을 냈으나 김정은 정권은 48차례의 공식 입장을 냈으며 이 중 연합훈련을 핵전쟁과 연관 지은 횟수는 24회였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을 빌미 삼아 핵 능력을 강화하는 도발을 이어가는 북한의 계략이 무너지고 북한 주민이 자유케 되어 복음을 듣게 되도록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들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나의 령혼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의 구원이라 하소서 내 생명을 노리는 자들은 수치와 모멸을 당하게 하시고 나를 치려고 꾀하는 자들은 물러가며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소서” 시편 35편 1~4절(남북한병행성경 북한어) 말씀을 주신 하나님, 교회와 성도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의 손을 거두지 않는 북한이 그 악행에서 떠나기는커녕 방어를 위한 한미군사훈련 중지를 요구하고 핵 능력 강화를 위한 도발을 계속해 나가는 계략을 주께서 막아 주옵소서. 도리어 저들이 자신들의 계략에 걸려 넘어져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옵소서. 오직 북한의 문이 열려 모든 주민이 자유로이 복음을 듣고 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 북한의 악행에서 주민을 건져 주시고 성도들을 은혜 안에서 강건케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탈북민 면담을 바탕으로 작성한 통일부 '2023 북한인권보고서'는 “공권력에 의한 자의적 생명 박탈이 북한 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러한 사형 집행이 미성년자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됐다”라고 밝혔습니다. 한 증언자는 “2018년 청진시 강변에서 미신 및 종교 행위로 18세 미만을 포함한 주민 2명이 공개 처형됐고, 2015년 강원도 원산시 경기장에서는 16~17세 6명이 한국 영상물 시청 및 아편 사용을 이유로

총살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악행에서 주민을 건져 주시고 성도들을 은혜 안에서 강건케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악을 일삼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에 굶주린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나의 힘이시여 내가 당신을 찬양할 것이니 하나님이며 참으로 당신은 나의 산성이시며 내게 인의를 베푸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59편 2절과 17절(남북한병행성경 북한어) 말씀을 주신 하나님, 종교 행위로 미성년자를 공개 처형하고, 청소년의 일탈을 사형으로 다스리는 무자비한 북한 당국의 악행에서 무고한 자들을 건져 주옵소서. 특별히 은밀하게 믿음을 지키며 예배하는 북한 성도들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숨겨 주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건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보내지게 하셔서 그들이 약속의 말씀으로 인해 힘을 얻고 찬양하는 은혜를 누리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 북한 사람들이 영적, 육적 기갈에서 농임을 받고 건짐받기를 기도합니다.

“당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태양절 이후 해외에 파견할 인력 모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인력선발사업은 우리(북한) 내부에서 제기된 심각한 식량문제와 직결된 것으로 위급한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해 농장원은 해외파견 인력선발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해외에 나갈 선발 대상은 2000위안(약 38만원)의 중국 인민폐를 바쳐야 한다.” 북한이 부족한 식량과 생필품 확보를 위해 중국에 파견할 노동자를 모집하고 있다는 북한 소식통이 전하는 내용입니다. 북한 사람들이 영적, 육적 기갈에서 농임을 받고 건짐받기를 기도한다.

“내가 당신을 신뢰하니 나로 하여금 아침에 당신의 인의에 대하여 듣게 하시고 내가 당신께 내 영혼을 올려드리니 내가 마땅히 가야할 길을 나에게 가르치소서...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에게 당신의 뜻을 가르치시고 당신의 선하신 령으로써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시편 143편 8절과 10절(남북한병행성경 북한어) 말씀으로 식량난의 수렁에 점점 깊이 빠져들고 있는 북한을 올려드리며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이 공급될 길을 열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해외 노동자로 파견될 북한인들이 먼저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북한에 복음이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북한인들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는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